『신앙과 학문』. 20(4). 223-247.

칼빈주의와 심리학의 이중 언어로 이루어지는 상담*

홍구화**

논문초록

상담은 신학과 심리학의 이중 언어로 이루어진다. 상담자의 신학은 상담자의 세계관을 형성하며 상담자가 사용하는 신학 언어와 심리학 언어에 영향을 미친다. 칼빈주의 상담자는 모든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신학과 심리학의 언어 모두를 능통하게 사용한다. 그들은 칼빈주의에 비춘 심리학의 한계를 인식하고 심리학적 지식을 상담에 적극적으로 사용한다. 칼빈주의 상담자는 신학과 심리학을 서로 배치되는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심리와 행동을 각각 신학과 심리학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다. 그들은 성경의 많은 가르침들을 심리학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심리학의 개념들을 발견한다. 칼빈주의 상담자는 상담 과정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담자의 성장을 촉진하며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상담에서 뿐만 아니라 내담자의 삶에서도 구한다.

주제어 : 칼빈주의, 심리학, 통합, 이중 언어

---

* 본 논문은 "이중 언어로 이루어지는 상담", 「신학과 심리학의 동행 왜 그리고 어떻게: 2014년 한국목회상담학회 가을학술대회」(2014. 11. 22), 35-51를 수정, 보완한 것임.

**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기독교상담학 교수

2015년 7월 28일 접수, 10월 20일 최종수정, 11월 11일 게재확정

Ⅰ. 들어가며

상담은 기본적으로 언어로 이루어진다. 언어는 어휘의 결합 그 이상이다. 알 듀엑(Al Dueck)이 지적하였듯이 언어는 생각하는 방식과 세상을 보는 방식을 반영한다(Dueck, 2002: 72-80). 상담자와 내담자가 주고받는 언어는 서로의 생각하는 방식과 세계관을 반영한다. 상담 현장은 상담자의 세계관과 내담자의 세계관이 언어를 수단으로 하는 상담 과정을 통하여 만나는 곳이다. 특히 상담자의 세계관은 내담자를 어떻게 이해하고 도울 것인지 상담의 방향을 정하는 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상담자는 자신의 언어와 내담자의 언어에 민감해야 할 뿐만 아니라 언어를 통해 전달되는 자신의 세계관과 내담자의 세계관을 잘 인식해야 한다.

기독교 세계관은 신앙을 종교적 진리의 영역에 가두어 두는 이분법적 사고를 벗어나 우리의 일과 삶의 모든 측면에 기독교 진리를 적용할 것을 요구한다(Pearcy, 2006: 53). 이런 면에서 그리스도인 상담자는 기독교 신앙의 언어를 심리학과 상담의 영역에서 통용되는 세상의 언어로 번역하여 사용하는 “이중 언어(Pearcy, 2006: 20)” 구사자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상담자의 세계관은 상담 현장에서 신학과 심리학의 이중 언어로 표현된다.

신학과 심리학의 언어 가운데 상담자가 가지고 있는 신학은 상담자의 신학 언어뿐만 아니라 심리학 언어에도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심리학을 인본주의의 산물인 위험한 학문으로 보는 신학을 상담자가 견지하고 있으면 심리학의 지혜와 언어를 내담자 상담에서 배척하거나 아니면 아주 제한적으로 사용할 것이다. 또 상담자의 신학이 번영신학에 기초하고 있다면 내담자의 고난을 이해하는 관점이나 상담 접근 방식 또는 상담에 사용하는 심리학도 번영신학을 반영할 것이다. 주관적인 체험 위주의 신학이나 성경을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신학에 기초한 상담자가 성경과 심리학을 대하는 자세는 성경을 성령의 감동으로 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신학을 가진 상담자의 자세와 다를 것이다. 성경의 권위와 성령의 감화를 믿지 않는 신학을 가진 상담자에게는 성경이 그의 생각과 세계관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담자를 이해할 때도 성경과 관계없이 심리학을 자유롭게 의지하기가 쉬울 것이다. 그러나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신학을 가진 상담자는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내담자를 이

해하며 심리학의 지혜도 그 바탕 위에서 사용하려고 할 것이다. 결국 상담자가 어떤 신학에 기초하고 있느냐가 상담에 있어 상담자의 세계관과 언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신학과 심리학의 언어로 이루어지는 상담의 가능성은 신학과 심리학의 통합에 대한 논의와도 연관된다. 신학과 심리학의 통합에 대한 논의는 복음주의 심리학자와 신학자들에 의해서 평행 설명 관점, 기독교 심리학 관점, 통합 관점, 변형 심리 관점, 성경적 상담 관점으로 전개되어 왔다(Johnson, 2010). 이 중 어느 관점을 따르는지에 따라 신학과 심리학의 이중 언어 상담의 가능성은 달라진다. 이들뿐만 아니라 드보라 밴 두젠 헌싱거(Deborah Van Deusen Hunsinger)도 바르트 신학에 기초해서 신학과 심리학의 두 가지 언어를 모두 구사할 줄 아는 목회상담을 주장했다(Hunsinger, 2000: 27). 그에 따르면, 이중 언어를 구사하는 목회상담자는 내담자의 자료를 심리학적 관점과 신학적 관점을 사용하여 내담자의 자료를 해석해야 한다. 그러나 그는 신학적 현상과 심리학적 현상은 서로 공존할지라도 명확하게 구분되며 본질적으로 서로 다른 수준의 실재를 반영한다고 보았다. 즉, 신학을 심리학적으로 해석하거나 심리학을 신학적으로 해석할 필요도 없고 신학과 심리학을 체계적으로 통합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다. 신학적 해석은 내담자를 이해하는 궁극적 맥락에 있어서 심리학적 해석에 비해 우위에 있어 신학적 해석과 심리학적 해석은 비대칭의 관계에 있다고 한다(Hunsinger, 2000: 29, 173-174).

이 논문은 칼빈주의에 기초한 신학과 심리학의 이중 언어로 이루어지는 상담의 실제와 과정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칼빈주의 신학은 하나님이 모든 지혜의 원천이시며 하나님은 특별계시와 일반계시로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분의 주권으로 세상을 통치하신다고 믿는다(Bavinck, 2013: 415-475).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는 목적은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 영화롭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일반계시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자연과 역사를 통해 인간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부르심, 즉 '실재를 통한 소명'도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 발견하고 알고 섬기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Bavinck, 2013: 464).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한 것은 이것을 잘 나타낸다(고전 10: 31).

하나님 중심의 칼빈주의 신학은 18세기 계몽주의 이후 세속화의 산물로 발달한 심리학조차 하나님의 지혜와 주권 안에서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신학적인 토대를 마

련해 준다. 칼빈주의 신학에 기초한 상담은 칼빈주의 신학이 심리학의 언어로 표현되는 이중 언어로 이루어지는 상담이다. 칼빈주의 상담자는 내담자의 언어에 귀를 기울여 그가 경험하고 있는 세계를 이해하고 내담자를 돕는 데에 영적 자원과 교회 전통의 지혜와 함께 심리학의 지혜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적절하게 사용한다. 칼빈주의 상담자는 내담자의 언어를 잘 이해할 뿐만 아니라 상담에서 신학과 심리학에 능통한 이중 언어 구사자가 되어야 한다. 그는 칼빈주의 신학을 내담자가 그리스도인이든지 비그리스도인이든지 심리학의 언어로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다. 또 칼빈주의 상담자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들을 열심히 탐구하고 의지하는 한편, 하나님의 지혜가 심리학을 통해 어떻게 계시되었는지 열린 마음으로 심리학에 접근하고 심리학의 한계를 인식한다.

이러한 칼빈주의 신학과 심리학의 이중 언어로 이루어지는 상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신학과 심리학의 통합 관점에 따른 칼빈주의에 기초한 이중 언어 상담의 가능성과 한계를 먼저 살펴보고 칼빈주의 신학을 살펴 본 후 칼빈주의 상담의 실제와 과정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II. 신학과 심리학의 통합에 대한 관점에 따른 칼빈주의에 기초한 이중 언어 상담의 가능성과 한계

신학과 심리학의 이중 언어로 표현되는 상담의 가능성과 한계는 신학과 심리학의 통합에 대한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복음주의 진영에서 신학과 심리학의 통합에 대한 관점은 크게 평행설명 관점, 통합 관점, 기독교 심리학 관점, 변형심리학 관점, 성경적 상담 관점이 있다.

평행 설명 관점은 모든 진리는 하나님에게서 오고 하나님의 진리는 성경 말씀을 연구하는 신학적 노력과 자연을 연구하는 과학적 노력에 의해서 발견된다고 한다. 이 관점에 따르면, 심리학 연구는 하나님의 말씀인 믿음과 가치관에 의해 조절되고 통제되어야 하는 반면 인간의 가치관들은 과학적 연구 결과에 의해 검증받아야 한다. 심리학과 기독교는 보완적 평행관계를 가지며 과학과 철학처럼 다른 수준의 작용을 한다. 심리학은 뇌의 구조, 자아, 또는 자신의 구조, 의식과 무의식, 인지적 체계, 정서적 모양

등과 같은 인간의 마음을 설명하는 학문이고 기독교는 선과 악, 죄, 구원, 영원한 삶 등과 같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는 영역을 다룬다는 것이다. 따라서 심리학과 기독교는 보완적 평행관계를 가지며 인간 경험의 서로 다른 차원을 다루기 때문에 각 학문의 차이는 존중되어야 하고 각기 다르게 접근해야 하며 각 분과 간의 경계선이 흐려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Myers, 2010: 49-78). 이 관점을 취하면 상담에서 신학적 이해와 심리학적 이해를 각기 다른 차원에서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칼빈주의 신학에 기초한 이중 언어 상담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헌싱어(Hunsinger)의 바르트 신학에 기초한 이중 언어 상담과 마찬가지로 내담자의 문제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주제를 심리학 언어로 설명하거나 심리적 문제를 신학 언어로 설명하는 이중 언어 상담은 제한적이 될 수밖에 없다.

통합 관점은 현대 심리학과 상담 이론들에 영향을 끼친 자연주의와 세속적인 인간론에 문제를 제기하며 신학과 심리학의 다학제간의 통합을 추구한다. 통합 관점은 모든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신념들이 인간에 대한 과학, 즉 심리학의 뼈대를 구성한다고 본다. 이 관점에서는 기독교 세계관에 비추어 심리학을 비판적으로 재해석하되 건설적으로 하는 작업을 시도하며 성경과 일관성이 있는 심리학을 발전시키고자 한다. 모든 진리는 위로부터 내려오고 하나님의 일반은총에 의해 불신자들의 통찰력 있는 저술들 속에서도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한다. 기독교가 심리학의 모든 측면과 긴장관계에 있을 필요가 없으며 뉴런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어떻게 뇌가 수학적 또는 감정적 정보를 통합하는지, 기억의 종류 등 성경이 말하지 않는 많은 주제들이 있다고 한다. 통합론자들은 성경적 진리에 바탕을 두고 비평적으로 통합을 추구하려면 성경과 신학을 계속 배우고 성경적 진리에 겸손과 함께 확신을 가져야 한다고 한다. 또, 심리학이라는 과학을 수행하는 데에 방법론적으로 정확성을 기하고 가장 높은 과학적 표준을 따를 것을 촉구한다(Jones, 2010: 101-120). 이 관점을 취하면, 상담에서 인간의 문제를 신학과 심리학의 다학제적으로 접근한다. 이런 점에서 이 관점은 신학의 주제들을 심리학의 언어로 심리학의 주제를 신학의 언어로 표현하며 한 현상을 신학과 심리학의 언어로 표현하는 이중 언어 상담의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기독교 심리학 관점은 성경이 전체 체계라면 심리학은 체계를 이루는 요소라고 본다. 이 관점은 기존의 기독교의 체계와 심리학의 요소가 서로 적응하여 생각과 실재에 대한 체계인 기독교 상담학이라는 새로운 체계를 만들어 내려고 한다. 이 관점을 가진

이들은 인간의 심리적 본성을 역사적 기독교에 따라 이해된 대로 정확하게 묘사하는 심리학을 발전시키고자 하며 역사적 전통에 있는 풍부한 자원들을 조사하는 것을 그 시작점으로 삼는다. 그래서 기독교 전통 속에 존재하는 역사적 인물과 예수 그리스도나 사도 바울의 심리학이 잘 드러나는 성경 구절들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활발하다(Roberts & Watson, 2010: 149-164). 기독교 심리학 관점에 있는 학자들 중에 죤슨(Johnson)은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개혁주의 신학에 기초해서 일반계시의 영역과 통합을 주장하는 기독교 심리학의 필요성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에 의하면, 기독교 상담에서 최대의 통합은 현대주의에 오염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스도께 개인과 기독교 공동체가 나아가게 하며 이론, 과정, 실제에 적용되게 신학과 심리학을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통합하는 것이다(Johnson, 2011: 339). 기독교 심리학 관점은 신학의 체계 안에서 심리학의 요소를 가진 상담을 도모한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일치하는 상담 모델을 제시하거나 상담을 통한 전도와 상담을 통한 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기독교 상담을 그 예들로 이해할 수 있다(김용태, 2006: 262-267). 기독교 심리학 관점에서도 통합 관점과 마찬가지로 칼빈주의 신학을 기초로 신학의 주제를 심리학의 언어로 심리학의 주제를 신학의 언어로 표현하며 한 현상을 각각의 언어로 이해하는 이중 언어 상담은 가능할 것이다.

변형 심리학 관점은 통합 관점에서 발전되어 분류된 관점으로 심리학이라는 과학을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사랑의 행위라고 하며 인간을 이해하려면 심리학과 상담의 영역에서 신앙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이 관점은 심리학을 하는 과정, 방법론, 결과물을 이해하고 발전시키고 유지하기 위한 기초로 심리학자의 영적, 정서적 변화를 중요시한다. 이 관점에 의하면, 심리학을 신앙 안에서 한다는 것은 심리학의 실재와 기독교의 실재라는 두 개의 구분된 영역이나 심리학과 신학이라는 구분된 방법론간의 관계를 의미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들에게 관찰 가능한 실재이면서 신앙에 의해 알려지는 실재인 단일하면서도 복합적인 실재에 대한 과학을 하는 것이다. 인간의 감정, 관계, 죄, 가치관, 성령 충만의 의미 등이 그것이다. 과학과 심리학을 비자연주의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과학을 하는 것은 신앙의 행위와 창조에 대한 관찰과 성찰을 하나로 통합하는 하나의 통일된 행위이다. 성경과 함께 과학으로서의 심리학은 삶을 위한 원리와 지혜를 제공해 줄 수 있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으므로 그 지혜가 불완전할지라도 심리학을 하는 비신자들로부터도 배울 수 있고 그

들과 대화를 할 수 있다고 한다(Coe & Hall, 2010: 199-220). 이 관점은 신학의 실재와 심리학의 실재를 구분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에서 신학의 주제를 심리학의 언어로, 심리학의 주제를 신학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 현상을 신학과 심리학의 언어로 표현하는 이중 언어 상담의 가능성을 표명하고 있다. 이 관점은 상담을 이끌어 나가는 상담자의 영적 정서적 변화와 성숙을 강조할 것이다.

성경적 상담 관점은 성경 자체로 상담 모델을 만들기에 충분하다고 믿고 심리학을 상담 이론과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거부하며 통합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인간의 가장 근본을 이루는 것이 심리적 욕구라고 답하는 통합론자들은 인간을 선하다고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심리학의 이단자들이라고 한다. 또, 통합론자들은 인간 문제의 원인을 바로 보지 못 하는 성격이론들을 교회에 끌어 들이며 그 이론들을 상담을 통하여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혼합주의자들이라고 비판한다. 그러나 이들이 심리학을 무시하거나 모두 받아들이지 않아야 한다고 하지는 않는다. 심리학은 성경의 권위에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인식론을 넘어서서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심리학은 거부한다고 한다(Powlison, 2010: 246-262). 이 관점은 상담의 목표를 마음의 변화, 삶의 태도의 변화, 공동체의 변화, 몸의 변화, 내담자의 성화에 둔다. 상담 방법은 성경 해석과 적용을 이용하여 인간의 기본 동기와 죄성, 자신에 대한 평가, 내적 믿음 등 심리 내적 역동과 고난을 상담에서 다룬다. 심리학으로부터 한 시간 방식의 상담, 내면세계에 대한 개념,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 등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방법들은 수용한다(김용태, 2006: 193-198). 이 관점에서는 내담자의 문제를 신학과 심리학의 다차원으로 이해하거나 한 현상을 신학의 언어와 심리학의 언어로 표현하는 이중 언어 상담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성경적 상담이 복음주의 기독교 상담이 붙잡아야 할 본질적 가치를 상담에 적용시켰다는 점에서 복음주의 기독교 상담의 핵심 범주에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안경승, 2012: 204) 성경적 상담 관점을 따르면 성경 해석과 적용 이외의 심리학의 방법과 지혜를 이용하는 상담 이론과 방법들을 배척하여 칼빈주의 신학에 기초한 일반은총의 영역이 너무 축소된다(홍구화, 2013: 215).

종합하면, 평행 심리 관점은 내담자의 문제를 신학과 심리학의 차원에서 이해하는 점에서는 칼빈주의 신학과 심리학의 이중 언어로 이루어지는 상담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열려 있으나 신학의 주제를 심리학의 언어로, 심리학의 주제를 신학의 언어로 표현

하거나 또는 한 현상을 신학과 심리학의 언어로 표현하는 상담에는 제한적이다. 통합 관점, 기독교 심리 관점, 변형 심리 관점은 칼빈주의 신학과 심리학의 차원에서 이해하는 이중 언어로 이루어지는 상담의 가능성뿐만 아니라 신학의 주제를 심리학의 언어로, 심리학의 주제를 신학의 언어로 표현하거나 한 현상을 신학과 심리학의 언어로 표현하는 이중 언어 상담의 가능성에 열려 있다. 성경적 상담 관점에서는 인식론으서의 심리학만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상담 이론과 방법으로서의 심리학을 배척하기 때문에서 칼빈주의 신학과 심리학의 이중 언어로 이루어지는 상담에 대한 논의가 불가능하다.

Ⅲ. 하나님 중심의 칼빈주의 신학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성경'(*sola Scriptura*), '오직 믿음'(*sola fide*), '오직 은혜'(*sola gratia*), '오직 그리스도'(*solus Christus*),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soli Deo gloria*)을 주창했다. 그들은 교황의 교황권 남용에 반기를 들고 교황에게 교회의 머리로서 사도적 권위가 있다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주장에 의문을 던졌다. 그들은 '교회가 세워지는 반석'(마 16:18)은 베드로 자신이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고백이라고 믿었다. 그들은 로마 카톨릭 교회가 종교 회의와 주교들과 학자들과 교회법학자와 풍유적 해석자들에게 성경을 귀속시킨 것에 항거하여 성경을 일반 신자들에게 돌려주려 하였다. 또 로마 카톨릭 교회가 손상시킨 성경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 싸웠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정경에 자신들이 추가한 가경을 혼합하였고 위조된 전승을 추가하였다. 또 '신부들의 만장일치 동의'와 '성모 마리아의 교회에 따른 해석'만을 인정하였다. 사제들은 마리아와 성인들과 성상들에 대한 이적적인 이야기와 수많은 정교한 예법과 의식을 동반한 미사를 중시함으로 설교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성경의 권위를 손상시켰다(Beeke, 2012: 36-39). 종교 개혁자들은 성경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여겼다. 그들은 모든 것을 '오직 성경'의 기준으로 판단할 것을 주장하고 성경만이 무오하며 성경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호흡으로 쓰인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진리와 능력의 말씀으로 주셨기에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고 믿었다. 또 성경과 성령의 조화를 강조하여 성경의 참된 해석자는 성령이시고 성경의 증거는 신자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내적 증언으로

확증된다고 믿었다(Beeke, 2012: 239-243). 또 종교개혁자들은 수도사들과 수녀들의 종교적 삶이 세속적 직업을 가진 삶보다 우월하다고 하거나 수도원주의를 영성으로 가는 유일하고도 최고의 길로 생각하는 수도원주의를 반대하였다(Beeke, 2012: 38). 그들은 삶을 고등한 것과 하등한 것, 영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으로 나누는 이원론에 반대한 것이다. 또 그리스도 이외의 모든 형태의 중보, 즉 마리아와 성인들의 중보를 반대하였고 은혜가 자동적으로 성례로 변화한다는 화체설을 배격하고 성례를 세례와 성찬으로만 제한했다. 구원에 있어서도 은혜와 행위가 모두 필요하다는 반펠라기우스적 사상을 배격하고 오직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을 주장하였다. 이후 쯔빙글리가 1529년 마부르크 회담 때 주의 만찬에 임하시는 그리스도의 임재에 관한 입장의 차이로 결별한 이후 개신교회는 루터주의와 칼빈주의로 나뉘게 되었고 칼빈주의는 개혁주의 전통이 되었다(Beeke, 2012: 36-39).

마틴 루터(Martin Luther)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 교리는 로마 카톨릭 교회가 은혜의 유일한 중보자이며 분배자라고 주장하는 중세의 잘못된 교회관에 도전하였다. 또 그의 만인제사장론은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새로운 이해를 가져왔다. 그의 주장들은 신학뿐 아니라 사회, 문화, 정치에 대해 함축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루터는 수도사들과 사제들의 일이 아무리 위대하고 거룩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일들이 들에서 일하는 농부들이나 집에서 가사를 돌보는 아내의 일보다 더 우월하거나 거룩하지 않다고 여겼다. 루터는 '두 왕국론'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왕국에 속해 있으며 성령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의 종이 아니며 하나님이 그들의 참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할 명령과 자유를 가진다고 하였다. 반면에 인간의 왕국은 율법이 적용되는 불신자들의 영역이며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의 왕국에서 불신자들과 함께 살아가며 자발적으로 일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질서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루터에게 국가는 그리스도인이 진정으로 소속되지 않는 인간의 왕국이었다(Beeke, 2012: 502-507).

존 칼빈(John Calvin)은 루터보다 더 정교하게 하나님 중심의 신학 체계를 세웠다. 칼빈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에 대해 아는 지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 자신도 알 수 없다고 하였다(Calvin, 1998: 1.1.1; 1.1.2; 1.1.3.)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지혜를 온 인류에게 제시해 주신다. 하나님은 주(主)되심을 창조세계에 나타내시고 긍휼하심으로 인류를 참아 주고

보호하심으로 보살피신다. 하나님은 주권으로 인간의 생활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신다(Calvin, 1998: 1.5.1; 1.5.2; 1.5.6; 1.5.7; 1.5.8; 1.16.3). 칼빈은 교회 바깥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긍정적인 요소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칼빈의 국가관은 중세의 개념이나 루터나 재세례파와 구별되었다. 중세 카톨릭 교회는 교회와 국가를 대립관계로 보았다. 루터는 국가를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속하지 않는 인간 왕국으로 보았다. 재세례파는 죄 된 세상 삶의 구조와 방식으로부터 구별되어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Beeke, 2012: 507). 칼빈은 정부 관리들을 하나님의 대표자로 하나님의 명령을 위임받고 신적 권위를 힘입는 사람들이라고 하였다(Calvin, 1998: 4.20.4).

칼빈은 학문과 손기술을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사로 보았다(Calvin, 1998:. 2.2.14). 하나님의 영이 진리의 유일한 원천이라면 그 진리가 어디에서 누구에게 나타나든 불신자에게서 나타날지라도 거부하거나 멸시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다. 시민의 질서와 규율을 수립한 고대 입법가들, 자연의 이치를 세밀하게 관찰하고 예술적으로 묘사한 철학자들, 수사학을 정립하고 조리 있게 말하는 법을 가르치는 사람들, 의학을 발전시켜 유익을 주는 사람들, 수학과 관련된 학문들 모두 칭찬하고 감탄할 만한 것들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이다. 인간 본성이 참된 선을 빼앗긴 이후에도 하나님은 많은 은사들을 인간 본성 속에 남겨 두셨다고 강조했다(Calvin, 1998: 2.2.15). 칼빈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연과학과 논리학과 수학과 그 밖의 학문의 도움을 받고 불신자들의 활동과 섬김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Calvin, 1998: 2.2.16).

칼빈주의는 제네바에서 독일, 헝가리, 폴란드,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스코틀랜드로 퍼져갔다. 17세기와 18세기에 걸쳐 영국의 청교도들, 네덜란드 칼빈주의자들, 프랑스의 칼빈주의자들인 위그노들, 독일 칼빈주의자들, 칼빈주의자들인 스코틀랜드 장로교인들과 스코틀랜드계 아일랜드인들은 미국으로 진출했다. 개혁주의 운동은 두 가지 신학 체계로 발전했다. 하나는 네덜란드로 대표되는 대륙의 개혁주의로 ‘벨직 신앙고백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도르트 신조’의 세 가지 공통 신조를 신앙고백으로 삼고 있다. 다른 하나는 영미의 장로교주의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요리문답’과 ‘소요리 문답’으로 잘 표현된다. 이 두 체계는 서로 적대적이거나 전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서로 큰 영향을 끼쳤다. 이외 종교 개혁으로 생겨난 대부분의 개신교 교파들

도 '39개 신조'(국교회), '사보이 선언'(회중주의), '침례교 신앙고백서'(침례교주의) 등 칼빈주의적 신앙고백에 기초하고 있다. 이 모든 신앙고백서들은 유아세례에 관한 교리 외에는 본질적으로 일치한다(Beeke, 2012: 40-53).

칼빈주의 신학은 19세기에 들어서 유럽의 계몽주의와 미국의 피니이즘(Finneyism) 등의 여러 영향을 받아 혼합되고 약해졌다. 20세기 중반 들어서는 19세기에 일어난 자유주의 신학과 다시 출현한 알미니안주의로 칼빈주의 신학은 급격하게 쇠퇴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지난 수십 년 동안 칼빈주의적 교회와 교파들은 다시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의미 있는 수준으로 발흥하고 있다(Beeke, 2012: 53-54).

20세기 들어 네덜란드에서는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를 중심으로 신-칼빈주의가 형성되기도 하였다. 신-칼빈주의는 문화 위임명령, 일반은총, 반명제(antithesis), 영역주권 사상을 특징으로 한다(Beeke, 2012: 512-513).[1] 신-칼빈주의자들의 이러한 신학과 사상은 20세기 북미 복음주의자들이 지성 결핍이라는 비판을 받은 것과 대비된다. 이들은 또한 선교를 위한 노력보다 문화를 강조하면서 그리스도의 구속 영역과 정황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본분을 간과하기 쉽다는 비판을 받는다. 일반은총 교리를 강조하다 보니 그리스도인들의 세속화에 문을 활짝 열어 놓았다는 비판도 받는다. 또 신-칼빈주의 자체 내에서도 지적 능력과 문화변혁의 열정이 개인 경건이나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경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자성의 소리도 있다(Beeke, 2012: 515-516).

한국에는 19세기 말 선교사들이 칼빈주의 전통을 전해주었고 장로교회는 명실상부한 칼빈주의, 즉 개혁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그 외 한국의 주요 교단들도 개혁주의 전통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다. 감리교회와 감리교회에서 파생한 성결교회 역시 넓은 의미에서는 칼빈주의 전통에 속하고 침례교 또한 청교도 운동에 뿌리를 두고 있으므로 개혁주의를 강하게 표방하느냐 아니냐의 차이는 있지만 한국의 중요한 교파 교회들이 대부분 개혁주의 전통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개신교는 또 초기에 부흥 운동을 경험하고 경건주의 신앙을 가졌다는 점에서 공통의 유산을 가지고 있다(김영재,

1) 창 1:28을 문화 위임명령으로 보고 직업과 소명에 대한 체계를 제공해 주었다. 칼빈의 가르침을 일반은총의 신학으로 발전시켰다. 반명제는 어둠의 왕국과 빛의 왕국 사이의 투쟁에 관한 사상이 개인의 마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과 세상의 사상에서도 발생한다는 개념으로 변증학적 질문에 답하는 데에 도움을 주었다. 영역주권은 '각기 그 종류대로'의 창조 원리를 사회의 다양한 영역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구조로 발전시켰다.

2010: 33). 한국의 보수 장로교회는 개혁주의 신학을 표방하고 있으나 근본주의와 세대주의, 경건주의 신앙과 혼합되어 원래 개혁주의 신학 전통과 다른 가르침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한국 교회가 역사상 부흥 운동으로 영적인 각성을 경험하였고 회심과 개종을 촉구하는 전도를 최우선의 목적으로 삼고 성장해 가는 선교 교회였으며 이러한 사상들이 보수 장로교회와 공통적으로 자유주의 성경관에 반대하여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강조했기 때문에 별 구분 없이 장로교회에 수용된 것이다(김영재, 2010: 426-427).

하나님 주권 교리는 칼빈주의의 정수이다. 칼빈주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적이다. 칼빈주의자가 되는 것은 "만물을 향하여, 모든 피조 세계에 대하여, 모든 피조물들의 노력에 대하여, 그리고 신자의 삶의 모든 국면에 대하여 포괄적이고도 주권적이며 부성적인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강조하는 것이다(Beeke, 2012: 87-88)." 칼빈주의 교리는 영어의 머리글자를 따서 TULIP으로 불리기도 하는 칼빈주의 5대 교리로 흔히 설명되어진다. 5대 교리는 전적 타락(Total depravity), 무조건적 선택(Unconditional election), 제한 속죄(Limited atonement), 불가항력적 은혜(Irresistible grace), 성도의 견인(Perseverance of the saints)이다. 이것은 네덜란드에서 1618-1619년 사이에 열린 도르트 종교 회의에서 알미니안주의자의 항의서에 대한 5대 답변에서 유래한다(Beeke, 2012: 67-68).

존 파이퍼(John Piper)는 이 다섯 가지를 대개 우리가 신자가 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순서로 경험한다고 설명한다(Piper, 2013: 17-18).

> 먼저 우리는 자신이 타락하여 구원이 필요한 존재임을 경험한다. 우리를 인도하여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경험한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 죄를 속하기에 충분함을 믿는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시고 믿음에 이르게 하신 그 배후에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이 있었음을 깨닫는다. 끝으로 우리는 선택해 주신 그분의 은혜 안에서 안식한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힘과 의지를 주어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한다.

Ⅳ. 칼빈주의 신학과 심리학의 이중 언어로 이루어지는 상담

1. 이중 언어로 이루어지는 상담의 실제

칼빈주의 상담자는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루어진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다. 칼빈주의 신학의 전제 아래에서 상담자 자신뿐만 아니라 내담자와 내담자의 삶과 내담자가 속한 가족과 사회 공동체를 이해한다. 그는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고백하며(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 1조) 상담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바란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믿는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피조물로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며 하나님이 은혜로 택하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는다. 또 종말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다. 하나님께서 내담자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고 믿기 때문에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그는 심리학이 지닌 자연주의의 한계를 넘어서 초자연주의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상담에서 인정한다.

칼빈주의 상담자는 “이미-그러나 아직”(already-but yet)의 구속사적 긴장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내담자가 타락으로 인한 죄와 연약함과 고난 가운데 있음을 이해한다. 죄의 영향은 개인의 선택과 선택의 결과들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에도 미친다. 내담자는 다른 사람들의 죄, 자기 자신의 죄, 사회의 죄로부터 영향을 받는다(Yarhouse et al., 2005: 97-103). 죄는 죄(sin)와 범죄(crime)와 질병(illness) 또는 죄(sin)와 연약함(weakness)으로 자의성 여부 또는 책임 여부에 따라 구분되기도 한다. 즉, 죄와 범죄는 행위자가 자의적으로 행하는 것이지만 아픈 것은 비자의적으로 일어난다든지(Menninger, 1973: 75), 죄는 죄를 지은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연약함은 정상적인 또는 자연스러운 인간의 능력이나 조건에 주어진 한계로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Johnson, 1987: 218-226)고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의성의 정도를 판단하기 어렵고 인간의 행동은 여러 가지 요소의 결합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또 타락으로 인한 인간의 온전하지 못한 모습은 죄와 연약함을 모두 포함한다(Yarhouse et al., 2005: 101-102). 그러므로 상담자는 내담자의 어려움이 타락의 결과로 초래된 인간의 죄와 질병 또는 연약함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오기 쉽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인간은 구원에 대하여는 자유의지를 행사하거나 어떤 영향도 행사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이다(롬 1: 28-32). 인간은 또 죄에 의한 한계가 있을지라도 구속의 은혜로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되어 가는 존재이다(롬 7:21-8:2). 그러므로 인간을 과거의 부모-자녀 관계나 내면의 욕동(drive) 또는 강화와 벌에 의해 결정되는 존재로만 이해하거나 복합적이고 다양한 인간을 기계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인간을 온전히 이해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인간은 또 영혼과 몸이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통일체인 전인격으로 보아야 한다. 마이클 호튼(Michael Horton)의 "심신 상관적 전인론(Horton, 2011: 380-381)"이나 앤서니 후크마(Anthony A. Hoekema)의 "심신 상관적 통일체(Hoekema, 2012: 299)"는 이것을 잘 반영한다.[2] 후크마는 인간에 대한 이런 이해에 근거해서 상담자가 영의 건강과 정신 건강을 분리하여 보아서는 안 되며 내담자의 문제를 전인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므로 인간을 전체적으로 보지 않고 한 부분으로 인간의 전부를 설명하려는 환원주의적 접근은 인간 이해에 한계를 갖는다.

칼빈주의 상담자는 하나님께서 일반은총으로 주신 심리학 지식들이 자연주의, 결정주의, 환원주의, 기계주의의 한계를 가지고 있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이해에 완벽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과 인간이 속한 가족과 사회를 이해하는 데에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믿는다. 내담자를 돕는 데에 심리학 지식들을 기꺼이 사용한다. 이런 의미에서 신학과 심리학의 통합 관점을 주장한 게리 콜린스(Gary R. Collins)와 기독교 심리학을 주장한 폴 비츠(Paul Vitz)의 심리학에 대한 비판적 주장은 칼빈주의 신학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하다 할 수 있다. 콜린스는 인간의 존재나 본질에 대해 성경적 관점을 가지고 직관과 상상을 포함하는 확장된 경험주의, 인간의 의지와 책임을 인정하는 수정된 결정주의, 성경 절대주의, 수정된 환원주의, 기독교 초자연주의를 주장하였다(Collins, 1981: 1-154). 또 비츠(Vitz)는 심리학의 철학적 전제가 무신론, 환원주의, 결정주의, 개인주의, 자기중심적 도덕성, 주관주의에 기초한다고 비판하며 기독교 심리학은 신론, 구성주의, 자유, 상호의존, 하나님과 타인 중심적 도덕성, 현실주의에 입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Vitz, 1997: 20-40).

일반은총 교리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서 보이는 재능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인다. 또 하나님은 일반 은총으로 타락한 세상에서 죄를 억제하시기 때문에 인간은

2) 후크마는 인간을 육체의 면과 비육체의 면을 가진 전인격으로 볼 것을 강조하였다.

완전하지 못하더라도 문명과 문화를 발전시킨다. 하나님은 그런 문화를 중요하게 보시고 땅을 다스리신다고 본다(Hoekema, 2012: 275-280). 세상을 유지하시는 하나님의 일반은총은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자주 나타난다. 예수님은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비를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본받아 원수들을 대하라고 말씀하셨다(마 5:43-48). 가라지 비유(마 13: 24-30)에서 가라지도 추수 때까지 자라게 두라고 하셨다. 사마리아인들에게 불을 내리려고 한 야고보와 요한을 꾸짖으셨다(눅 9:51-56). 일반은총으로 구원에 이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불신자들도 먹이고 입히고 치료하고 돌보시고 이 땅의 즐거움을 주신다(Horton, 2009: 157-165). 통합 관점에 서 있는 스탠튼 존스(Stanton L. Jones)가 기독교와 심리학의 통합을 "모든 현실에 특히 우리의 학문 분과에 대한 우리의 기본적인 믿음과 실천을 결정하는 데에 하나님의 특별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권위를 인정하고 모든 존재 위에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내는 것이다(Jones, 2010: 115)"라고 정의한 것은 칼빈주의의 하나님 중심과 일반은총 교리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하다 하겠다.

하나님이 주신 일반은총으로 우리는 심리학과 상담의 다양한 이론들을 통해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과 세상의 다양한 면들을 보여 주는 퍼즐 조각들을 발견할 수 있다. 이 퍼즐 조각들 중에는 자연주의의 한계 속에서 성경에 계시된 신론이나 인간론에 비추어 잘못된 것들도 있다. 그러나 조각조각 모아 보면 과학자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의 법칙들을 발견해 가듯이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의 마음과 관계의 비밀들을 파악해 갈 수 있다. 현대 심리학의 많은 이론가들이 유대-기독교 전통에서 벗어나 의미있는 대안을 제시하려 하는 인본주의 전제에서 출발했다(Johnson, 1997: 14) 하더라도 모든 지혜의 원천은 하나님이시다. 잘못된 부분들은 분별하면 되지 잘못된 부분들 때문에 전체를 버리는 것은 과일반화이다. 하나님은 악한 것마저도 선으로 이끄실 수 있다(롬 8:28). 우리는 기독교에 적대적인 이론을 전개한 심리학 이론에서 조차도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

모든 지혜의 원천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학의 언어와 심리학의 언어가 동일한 현상을 각각 다른 언어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그문트 프로이드(Sigmund Freud)나 멜라니 클라인(Melanie Klein)은 인간의 내면세계를 밝게 보지 않았다. 그들이 인간의 성격 형성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성적 욕동(drive), 오이디프스 콤플렉스, 죽음에의 욕동, 공격성, 멸절 공포, 박해 불안 등은 인

간의 죄성에 견줄 수 있는 인간의 본능적인 충동들이다. 프로이드가 기독교 신앙에 적대적이고 종교를 법과 죄책감의 종교로 즉, 가부장적인 종교로 규정했다고 해서(Jones, 2004: 37-39) 하나님이 그를 통해 주신 지혜를 모두 버릴 필요는 없다. 프로이드에 기초해서 안나 프로이드(Anna Freud)가 정리한 인간의 방어기제에 대한 이해(최영민, 2010: 170-187)는 인간 심리에 대한 이해를 풍성하게 해 준다. 타락 후 하나님의 질문에 아담이 보인 반응은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는 자기애적 방어기제였다(창 3:12). 대상관계 이론들과 자기심리학은 어린 시절에 아이가 주양육자의 적절한 정서적 돌봄을 받지 못하면 성격과 관계에 어떤 어려움이 생기기 쉬운지 잘 설명해 준다. 타락으로 온전한 양육을 해내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과 거기에서 파생되는 인간의 일그러진 성격 형성 과정을 볼 수 있다. 이런 이해는 우리로 하여금 완벽한 대상 또는 자기대상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을 갈망하게 한다. 칼 융(Carl Jung)은 하나님을 상징과 심리적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기독교의 삼위일체 교리를 다른 종교의 삼위성과 혼동하여 4위성을 도출하는 등의 오류를 범했다. 그러나 그의 집단무의식, 페로조나, 그림자, 16가지 성격유형의 기초가 된 정신 유형 등과 같은 인간 분석의 지혜들은 인간 이해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기독교 영성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Winckel, 2010: 45; 185-222).

인지행동주의 이론들은 타락으로 인해 온전하지 못한 인간의 사고과정이 감정과 행동에 어떤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 잘 보여 준다. 이는 다른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잠 4: 23)과도 일맥상통한다. 생각의 중요성은 성경에도 많이 나타난다. 성경은 사고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고 가르치실 때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인용하셨다(마 4:1-11; 눅 4: 16-19). 하나님의 말씀은 왜곡된 사고와 비합리적 신념을 논박할 수 있는 좋은 근거가 된다. 알버트 엘리스(Albert Ellis)는 기독교에 호의적이지 않았지만 그가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한 다음과 같은 신념들은 기독교 관점에서도 타당하게 재해석될 수 있다(Ellis and MacLaren, 2007: 51-52).

> 나는 어떤 상황에서든 주어진 일을 반드시 잘 수행해야만 하고 중요한 타인에게서 인정을 받아야만 한다.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든 나를 반드시 공정하게 그리고 친절히 대해야만 한다. 세상일은 항상 반드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하고, 대부분 즉각적인 만족이 뒤따라야 하며, 내가 힘들게 세상을 변화시킬 필요가 없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는 정말 끔찍하고 참을 수 없는 일이며, 그런 상황에서 내가 행복해진다는 것은 전적으로 불가능하다.

인간의 죄성과 연약함에서 오는 한계와 타락한 세상의 불공정과 갖가지 위험을 생각하면 이 신념들을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한 것은 타당하다. 인간의 행동이 강화와 벌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은 상을 주시기로 약속하시는 하나님(히 11:6; 마 10: 40-42)과 악하고 게으른 종에게서 한 달란트마저 빼앗는 달란트 비유(마 25:14-30)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또 예수님은 여러 가지 일 중에 주의 말씀을 듣는 한 가지를 택한 마리아를 칭찬하시므로 마리아의 행동을 강화하셨고(눅 10: 38-42) 제자들에게 전도라는 숙제를 주셨다(눅 10: 1-20).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공생애 3년 동안에 모델링(modeling)을 해 주셨다.

칼 로저스(Carl Rogers)의 내담자 중심의 상담이론은 인간의 죄성을 간과하고 인간을 스스로 자기를 실현해 갈 수 있는 선하고 지혜로운 존재로 보았다. 그러나 인간을 전인(全人)으로 보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존재로 파악한 점은 성경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다 할 수 있다. 로저스는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자기를 실현하는 데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고 진정한 자기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간과했지만 인간은 성령 안에서 성장해 갈 수 있는 존재이다. 인간이 자기실현의 욕구를 가지고 성장하는 과정은 인간이 성령 안에서 성화되어 가는 과정 즉,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과 대비된다. 인간은 공감(empathy), 일치성 또는 진정성(congruence or genuineness), 무조건적인 긍정적 관심(unconditional positive regard)을 제공해 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자기실현의 성화를 이루어 간다. 우리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롬 5: 8) 안에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긍정적인 관심을 경험한다.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으로 오시고(빌 2:7-8)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신(사 53:4) 예수님에게서 우리는 공감의 절정을 경험한다. 우리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항상 변함없으신 하나님(삼상 15:29), 그 어느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롬 8: 33-39), 우리를 위해 늘 중보하시는 예수님(히 7:25)과 성령님(롬 8:26)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치성 또는 진정성을 경험한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면도 하시고 사랑의 징계도 하신다(히 12:5-9).

고전 12장 12-27절에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의 관계로 설명하는 가르침은 가족체계 이론에서 유기체성과 상보성 개념으로 표현될 수 있다. 요 9장 1-3절에서 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이 자기의 죄 때문이냐 부모의 죄 때문이냐고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재정의(reframing) 하신다. 창 2장 24절과 엡 5장 21절- 5장 33절의 가르침은 머레이 보웬(Murray Bowen)이 원가족으로부터 분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과 살바도르 미누친(Salvador Minuchin)이 구조적 가족치료에서 부부 하위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맥락치료에서 이반 보스조르메니 나쥐(Ivan Bosznormenyi-Nagy)가 주장한 다측면 공정성 원리는 엡 5장 21 - 33절의 대칭의 부부관계와 엡 6장 1-4절의 비대칭의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가르침을 가족치료의 언어로 표현한다. 창 32장 24-32절에서 야곱과 씨름하신 하나님은 경험주의 기법을 사용하셔서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생생한 경험을 통해 변화되게 하셨다.

2. 이중 언어로 이루어지는 상담 과정

칼빈주의 신학과 심리학의 이중 언어로 이루어지는 상담은 내담자가 그리스도인인 경우 내담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고 성숙하게 도와주는 것(엡 4:15-16)을 상담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는다. 그러므로 내담자가 호소하는 문제 해결이나 증상 감소만이 목적이 될 수 없다. 그리스도인 내담자는 죄인이지만 자신의 선택과 행동에 책임을 지며 성령 안에서 성장해 갈 수 있는 존재이다. 상담자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상담을 통해 호소 문제들을 다루면서 내담자가 두렵고 떨림으로 성화를 이루어가는 과정(빌 2: 12)을 촉진시킬 수 있다. 변화의 동인은 내담자에게 있지만 상담자는 성령님을 힘입어 내담자의 변화를 촉진시켜 준다(Anderson, 2010: 56-72). 변화를 촉진시켜 주는 상담자-내담자 관계에 대해서는 내담자 중심의 상담이론과 정신역동 이론들의 지혜들이 도움이 된다. 심리학의 언어로 표현된 이 지혜들은 예수님의 사역에도 잘 나타나 있다. 상담이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는 통로가 되기 위해 상담자는 먼저 공감과 존중과 진정성으로 내담자와 라포를 형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안아 주는 환경'을 제공해 주고 내담자의 감정에 잘 반응해 주는 '참 좋은 엄마', '이상화된 부모'가 되어 준다. 또 치료적인 투사적 동일시가 일어나도록 내담자의 감정을 잘 담아주고(contain) 적절하게 공감하며 반응해 주어야 한다. 내담자는 자기 속에 함몰되어 있는 자폐적 단계에서 상담자와 공생관계를 이룬 후 분리기를 거치며 상담자로부터 독립해

간다. 예수님은 공생애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지식만 가르치시지 않고 삶을 나누고 관계를 형성하시며 자폐-공생-분리 과정을 거치셨다. 예수님은 자신의 세계에 머물러 자폐적 단계에 있던 제자들과 3년간 공생관계를 이루시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면서 분리기를 가지셨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무서움과 두려움을 담아 주고 변형시켜 돌려주어 치료적인 투사적 동일시가 일어나며 제자들에게 변화가 일어나게 하셨다(마 14: 22-33; 요 6:15-21). 삭개오에게 이상화 대상인 예수님이 삭개오를 인정하고 수용해 주셨을 때 삭개오에게는 변화가 일어났다(눅 19: 1-10). 요 21장 15-17절은 베드로의 실패감과 거절에 대한 불안감을 예수님이 어떻게 치료적인 투사적 동일시 과정으로 회복시켜 주셨는지 잘 보여 준다.

이러한 관계 가운데 상담자가 내담자의 호소 문제를 다루면서 내담자의 성숙과 변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다.

첫째, 내담자가 상담을 통해 성숙해 가는 과정에서 상담자는 내담자의 고통의 감정을 잘 들어 주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하갈의 고통을 들으셨고(창 16:1-14; 창 21:14-21)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셨으며(출 2:23-25)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하고 통곡하던 한나의 기도도 들어 주셨다(삼상 1:9-18).

둘째, 영적 성장을 위해서 상담에서 죄책감과 수치감을 다루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죄책감과 수치감에 대해서는 여러 이론들에 비추어 다양한 논의들이 있지만 죄책감과 수치감의 원천은 타락이다(창 3: 1-11). 하나님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으로 죄책감과 수치감을 회복하셨다(창 3:15; 사 53:4-6).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간음한 여인의 죄책감과 수치감을 다루신 방법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일깨워 준다(요 4:1-26; 요 8:1-11). 내담자는 먼저 상담자와 관계 속에서 물 길으러 나오는 사람이 없는 한낮에 사람을 피해 물을 길으러 나온 사마리아 여인을 그 시간에 찾아가 만나신 예수님, 간음한 여인에게 아무도 정죄하지 않고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용서하신 예수님이 경험되어져야 한다. 내담자의 죄책감과 수치감으로 얼룩진 비참한 경험과 감정이 상담자에 의해 수용되고 공감되는 가운데 예수님의 수용과 공감이 경험되어야 한다. 이 과정 가운데 행위에 대한 죄책감은 내담자를 회개와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갈 것이다. 죄책감은 정죄감과는 다르다.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롬 8: 31-34). 존재에 대한 수치감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예수님(사 42: 3; 마 12: 20)을 상담을 통하

여 경험할 때 하나님 안에서 자존감으로 변화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상담자-내담자 관계에서 일어나는 역동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인지행동주의 상담 등 여러 가지 상담 기법들을 통해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상담 과정에서 용서를 다루는 것은 심리적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 성장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것이 허물어졌다(히 4:14-16).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할 것을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 용서하라고 명하셨을 뿐 아니라(마 18: 21-35)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다(마 5:44-45). 내담자가 하나님의 용서를 힘입어 자신을 정죄하지 않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며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하게 하는 과정은 성화의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다. 상담에서 용서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엔라이트(Robert Enright)의 모델과 워딩턴(Everett L. Worthington)의 모델을 포함하여 용서에 대한 상담기법들은 용서를 촉진시키는 공통의 핵심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내담자와 함께 용서에 대한 개념정리를 하는 과정, 상처를 떠올리기, 공감 형성, 자기 자신이 저지른 가해를 인식하기, 용서하기로 서약하기, 그리고 용서하지 않는 것을 극복하기이다(Wade and Worthington, 2005: 160-177).

넷째, 상담을 통해서 내담자가 고난과 고통의 의미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에서 찾아 자신의 경험을 재정의(reframe)하고 고난 가운데에서도 악에서 선을 이끌어내시는 하나님(롬 8:28)을 신뢰하도록 도와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내담자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변화는 다양한 접근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상담자-내담자 관계의 역동을 통해 촉진될 것이다. 상담자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내담자에게 투사적 동일시 과정을 통하여 내담자에게 내재화될 때 도움이 될 것이다. 내담자의 불신과 의심의 감정을 상담자가 잘 담아주고 긍정적인 감정으로 변형시켜 돌려줄 때 내담자는 상담자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내재화시키기 쉬울 것이다. 상담자가 내담자와 함께 고난을 견디어(hold) 줄 때 내담자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내는 줄 알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롬 5:3-4) 성숙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칼빈주의 상담자는 상담 과정에서 성령님을 의지하여 심리학과 상담 이론들에 근거한 다양한 상담 기법들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 여러 상담기법들도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시는 사역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상담자는 성경 말씀도 내담자의 변화를 촉진

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딤후 3:16-17; 히 4:12). 예를 들어, 인지행동주의 상담 기법을 사용할 때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하시는지 논박할 때 사용할 수도 있고 성경 말씀으로 위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구원과 성화에 대해 알 수 있는 근원이기도 하다(벧전 1:23-25; 2:2-3; 롬 10:17). 상담에서 말씀을 사용할 때는 내담자의 필요에 맞추어 민감하게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상담자는 상담 중이나 상담실을 떠나서 내담자를 위하여 기도를 할 수 있다. 시편과 같이 내담자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반영하여 표현해 주는 중보기도는 내담자의 감정 표현과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는 분이시다(마 5: 45). 칼빈주의 상담자는 비그리스도인 내담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 내담자가 비그리스도인인 경우에는 내담자의 가치관을 존중해 주고 신학의 언어가 심리학의 언어로 적절하게 표현되어야 할 것이다. 예수님을 통한 궁극적인 변화를 가져 오는 데에 한계가 있겠지만 고통의 감정 들어 주기, 죄책감과 수치감 다루기, 용서, 고난의 의미 찾기 등은 비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도움이 된다. 칼빈주의 상담자는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에 달려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고 믿기 때문에 비그리스도인 내담자를 상담할 때 회심만을 상담 목적으로 삼지 않는다. 비그리스도인 내담자도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으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상담 중 회심을 경험하거나 신앙에 관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담자는 늘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한다. 때에 따라서는 내담자의 동의와 함께 복음을 전할 수도 있다.

V. 마치는 말

칼빈이 지적하였듯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인간을 아는 지식과 서로 연결되어 있다. 온전한 부모, 온전한 환경, 온전한 관계, 온전한 인간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의 눈은 하나님에게로 향하게 된다. 진정한 자기통합과 자기실현은 하나님과 만남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음을 깨닫게 된다. 또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둘 때 어떠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소망을 잃지 않고 세상을 이기고 담대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칼빈주의 신학과 심리학의 이중 언어로 이루어지는 상담에는 살

아계신 인격체이신 하나님이 중심이 되신다. 칼빈주의 상담자는 하나님이 상담자의 삶뿐만 아니라 내담자의 삶도 주관하고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상담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 의지한다. 그는 신학을 심리학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인 상담자는 신학과 심리학의 이중 언어로 이루어진 상담을 통해 내담자의 성화와 삶의 변화를 촉진시킨다. 내담자의 변화된 삶은 하나님 안에서 통합된 자아가 이웃과 하나님에게로 확장되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기실현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김영재 (2010).『한국교회사』. 수원: 합신대학원출판부.

안경승 (2012). "복음주의 기독교 상담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복음과 상담』. 19. 188-216.

최영민 (2010).『쉽게 쓴 정신분석이론: 대상관계이론을 중심으로』. 서울: 학지사.

홍구화 (2013). "개혁주의에 기초한 상담."『신학정론』. 31(1). 191-226.

Anderson, R S. (2010). *Christians Who Counsel.* Eugene: Wipf and Stock Publishers.

Bavinck, H. (1906). *Gereformdere Dogmatick.* 박태현 역 (2013).『개혁교의학』. 서울: 부흥과 개혁사.

Beeke, J. R. *An Introduction to Calvinism: Living for God's Glory.* 신호섭 역 (2012).『칼빈주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 서울: 지평서원.

Calvin, John. (1559).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translated by Henry Beveridge (1998). Grand Rapids: Eerdmans Publishing Company.

Collins, G R. (1981). *Psychology & Theology: Prospect for Integration.* Nashville: Abingdon.

Dueck, A. (2002). "Babel, Esperanto, Shibboleths, and Pentecost: Can We Talk?." *Journal of Psychology and Christianity* 21. 72-80.

Ellis, A. and MacLaren, C. (2005). *Rational Emotive Behavior Therapy: A Therapist's Guide* (2nd ed.). 서수균・김윤희 역 (2007).『합리적 정서행동치료』. 서울: 학지사.

Hoekema, A. A. (1986). *Created in God's Image.* 이용중 역 (2012).『개혁주의인간론』. 서울: 부흥과 개혁사.

Horton, M. (2006). *God of Promise: Introducing Covenant Theology.* 백금산 역 (2009).『개혁신학의 뼈대를 세워주는 언약신학』. 서울: 부흥과 개혁사.

_____ (2011). *The Christian Faith: A Systematic Theology for Pilgrims on the Way.* 이용중 역 (2012).『언약적 관점에서 본 조직신학』. 서울: 부흥과 개혁사.

Hunsinger, D. V. D. *Theology ad Pastoral Counseling: A New Interdisciplinary Approach.* 이재훈・신현복 역 (2000).『신학과 목회상담』.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Johnson, E. L. (1987). "Sin, Weakness, and Psychopathology."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15, 218-226.

_____ (1997). "Christ the Lord of Psychology."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25. 11-27.

Jones, J. W. (1993). *Contemporary Psychoanalysis and Religion: Transference and Transcendence*. 이재훈 역 (2004).『전환기의 종교와 심리학: 정신분석학, 페미니즘 & 신학』.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Jones, S. L. (2010). "An Integration View." in Johnson, E. L. (Ed.) (2010). *Psychology & Christianity: Five Views*. Downers Grove, IVP Academic.

Menninger, K. (1973). *Whatever Became of Sin?.* New York: Hawthorn.

Pearcey, N. R. (2004). *Total Truth: Liberating Christianity from Its Cultural Captivity*. 홍병룡 역 (2009).『완전한 진리』. 서울: 복 있는 사람.

Piper, J. (2013). *Five Points: Towards a Deeper Experience of God's Grace*. 윤종석 역 (2014).『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서울: 두란노.

Vitz, P C. "A Christian Theory of Personality." in Roberts, R. C. & Talbot, M. R. (Eds) (1997). *Limning the Psyche: Explorations in Christian Psychology.* Eugene: Wipf and Stock Publishers.

Wade, N. G. and Worthington, E. L. (2005). "In Search of a Common Core: A Content Analysis of Interventions to Promote Forgiveness."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Practice, Training* 42. 160-177.

Winckel, E. V. D. (1975). *Les Symboles et l'inconscient: Essai d'interpretation*. 김성민 역 (2010).『융의 심리학과 기독교 영성: 신과 무의식』.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Yarhouse, M. A., Butman, R. E., and McRay, B. W.(2005). *Modern Psychopathologies: A Comprehensive Christian Appraisal.*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Abstract

Bi-lingual Psychotherapy in Calvinism and Psychology

Gu-Hwa Hong Yi (Hapdong Theological Seminary)

This paper proposes that therapy is bi-lingual in theology and psychology. The theology of the therapist forms his or her world view and determines the languages that the therapist uses. Calvinistic therapists are experts in the languages of theology and psychology because they believe all wisdom comes from God. They actively utilize psychological knowledge in therapy, acknowledging the limits of psychology in light of Calvinism. Because Calvinistic therapist do not think theology and psychology are contradictory, they can explain human psychology and behavior in each language. They can explain many teachings in the Bible with the language of psychology and find many psychological concepts in the Bible as well. Calvin therapists rely on God in the therapy process, facilitate the growth of clients, and seek God's sovereignty and glory in therapy as well as in the lives of clients.

Key Words: Calvinism, psychology, integration, bi-language